

우리나라 電子部品産業의 育成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李 承 勳*

〈目 次〉

- I. 序 論
- II. 電子産業과 部品産業
- III.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特徵
- IV. 萎縮된 部品産業과 歪曲된 都給體系
- V. 改善方案

I. 序 論

현대적 製造業이 지니는 여러가지 構造的 特性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都給體系의 高度化라고 말할 수가 있다. 工產品의 品質과 機能이 급속하게 改良되면서 部品の 生産과 器機의 設計 및 組立이 分業化하고 이에 따라 器機의 生産을 担當하는 母企業과 部品生産을 担當하는 中小企業들이 긴밀한 都給體系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 한 産業 내의 都給體系가 얼마만큼 건실하게 발달되어 있는가는 그 産業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判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된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을 대상으로 하여 器機를 제작하는 母企業과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企業들 사이의 都給體系를 分析하고 問題점들을 부각시킨 다음 이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租稅 및 金融面의 지원 등 電子産業 特有的의 問題가 아니고 中小企業 一般에 關連된 問題들은 尙급적 考論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電子産業에서 가장 중요한 部品産業으로 擧급되고 있는 半導體産業은 그 規模에서 中小企業의 分野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 절에서는 電子産業에서 部品産業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3 절에서는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特徵을 概括한 다음에 이것을 單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敎授. 本研究은 韓國開發研究院의 위촉을 받아 수행되었다. 研究의 進行과정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고 本論文의 출판을 양해해 준 同研究院에 감사 를 표한다.

純勞動集約的 組立産業, 높은 外資依存度, 技術導入 및 輸出産業의 4項目으로 要約해 보았다. 다음 제 4 절에서는 특히 部品産業 및 都給體系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部品産業은 需要不足, 技術의 落後性, 資金不足 및 經營者의 成分 등의 요인에 의하여 그 發展이 萎縮되고 있으며 都給體系는 內國人 母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都給比重이 低調하고 輸出의 形態가 대체로 商業的 都給의 形態이며 都給比重이 低調한 內國人 母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關係마저도 和合的이지 못하고 서로 對立的인 등 그 構造가 심히 歪曲되어 있는 점이 檢討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 5 절에서는 內需의 振作, 器機生産規模의 大型化, 部品生産業體間의 團體結成 및 中小企業活動與件의 改善 등이 改善方案으로 提示될 것이다.

II. 電子産業과 部品産業

電子産業은 現代의 最尖端을 달리는 技術産業 가운데 하나이다. 그 一般的 構造는 素材, 部品, 器機 및 시스템의 여러 段階를 갖는데 이 가운데 때로는 하나의 器機가 또 다른 器機의 部品으로 사용되는 등 그 形態가 고도로 分化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어느 한 企業이 電子製品의 전 生産段階를 한꺼번에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各段階 및 各品目別로 生産을 專門化하고 있는 수많은 企業들이 서로 긴밀한 關係를 맺으면서 電子産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品目 및 段階別로 그 生産이 서로 다른 企業들에 의하여 제각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生産段階間의 關係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긴밀하다. 특히 既存器機 및 시스템의 改良이나 새로운 電子器機의 開發 또는 設計는 素材와 部品の 生産過程에서 體得된 知識을 활용하는 등 蓄積된 技術을 토대로 할 때 더욱 容易하여진다. 素材와 部品の 特性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이것을 사용하여 器機 및 시스템을 生産하고자 할 때 그 設計 및 製作에서 더 有利한 위치를 점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새로운 器機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새로운 器機의 製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部品の 開發可能性은 部品産業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技術을 토대로 할 때 보다 더 올바르게 타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部品産業과 아울러 器機의 設計 및 製作部門이 잘 발달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部品에 대한 需要가 不實하게 되므로 部品産業自體의 存在조차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部品の 生産段階와 器機 및 시스템의 生産段階는 비록 分業化되어 있으나 대단히 긴밀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器機 및 시스템의 設計와 製作은 電子産業의 核心을 이루는 部門이 되며 素材 및 部品産業은 그 밑바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한 가지의 素材는 대부분의 경우 電子産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電子産業의 素材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다른 産業의 素材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各種의 금속 및 合成樹脂 등은 여러 分野의 産業에서 基本素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의 素材에 대한 需要는 各分野의 産業으로부터 발생하는 業種別 需要의 합으로서 그 規模가 방대한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그 생산기술에 있어서도 「規模의 經濟」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企業의 規模로 볼 때 素材産業에서는 大企業일수록 유리하게 된다. 더우기 방대한 규모의 施設投資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素材産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資本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半導體産業에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基本素材 실리콘은 全世界를 통털어 3개의 企業에 의하여 생산공급될 만큼 개별생산기업의 規模는 방대한 것이다.

電子器機 및 시스템을 製作하는 단계에서도 한개의 器機를 생산하는 데에는 수많은 종류의 部品이 소요된다. 또한 잡다한 여러가지의 部品을 組立하여야 하는 器機의 생산과정 자체가 生産技術的으로 規模의 經濟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器機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일반적으로 企業規模가 大規模일 경우가 中小規模일 경우보다 더 有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器機生産의 段階에서는 素材産業에서와는 달리 필요한 投資規模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部品生産의 段階를 살펴보면 事情이 다음을 알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部品은 어느 한 종류의 器機生産에만 사용되는 수가 있으며 (특수용도의 부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 때 이 部品에 대한 수요는 이것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器機의 生産量의 크기로 制約된다. 즉 部品에 대한 需要는 器機 및 시스템에 대한 需要에 의하여 그 크기가 制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때 部品에 대한 需要는 金額面에서 볼 때 器機에 대한 需要에 비하여 훨씬 矮少한 크기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部品産業은 그 製品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矮少하기 때문에 (素材 또는 器機産業의 경우와는 달리) 中小企業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部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구실을 하는 集積回路(IC), LSI, VLSI 및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등을 생산하는 半導體産業에서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特殊裝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半導體産業은 大規模의 投資를 필요로 하는 業種으로서 결코 中小企業이 감당할 수 있는 業種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밖의 거의 모든 部品の 生産은 대체로 中小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規格 및 品質面에서 標準化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그 사용 범위가 넓은 凡用的 部品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에 의한 생산보다는 오히려 大企業에 의한 大量生産이 더 유리하다.

用途가 高度로 特化되어 어느 한 종류 한 商標의 器機生産에만 專用되는 部品일수록 中小規模의 生産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電子産業은 그 발전속도가 어떠한 다른 산업보다도 빠른 것이 특징이며 특히 그 生産技術面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電子製品과 그 製品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특수 部品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製品에만 소요되는 專用部品일수록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시시각각 새로운 製品이 개발되고 있는 현대의 電子産業에서는 특히 그 部品生産이 中小企業들에 의하여 主導될 수 밖에 없다.

한 開發途上國이 産業化戰略의 일환으로서 電子産業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器機 및 시스템의 生産段階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 理由는 필요한 投資의 規模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器機生産에는 높은 부가가치가 따르기 때문이다.(器機生産의 段階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유는 設計 및 販賣活動에 대한 부가가치가 加算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器機 및 시스템의 生産段階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部品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部品을 海外로부터 수입하거나 器機生産企業內部에서 스스로 自作하여 조달하게 되지만, 産業이 발달하여 갈수록 部品과 器機의 分業化가 촉진되어 獨立的인 部品生産企業이 母企業으로부터 分離되어 나오고 또한 輸入代替도 이루어지면서 中小企業으로 구성된 部品産業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部品産業이 얼마나 건실하게 발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한 나라 電子産業의 현 위치가 평가되고 추후의 發展可能性이 左右되는 것이다.

III.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特徵

1. 單純勞動集約的 組立産業

電子産業은 素材와 部品の 생산 및 器機의 設計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技術集約的이고 또한 資本集約的인 産業이다. 資本과 技術의 측면에서 不利한 우리나라의 경우 素材産業과 半導體産業은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部品 및 器機의 組立段階는 單純勞動集約的이고 필요한 投資金額의 規模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자연히 部品 또는 器機를 組立生産하는 段階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최근의 統計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나라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기업들 가운데 약 70%가 組立業體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資料: 朴在麟, 「電子製品의 競爭力 배양 방안」, 『商議週報』, 1980. 6. 23).

器機의 組立生産을 主導하는 技術은 무엇보다도 設計技術이다. 現在로서는 우리의 獨自

的인 設計技術로 개발된 새로운 器機는 아직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設計技術은 아직까지는 外國에서 개발된 製品을 세밀하게 檢討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약간 변용된 製品을 複製하는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獨自的인 設計技術을 자부할 수는 없지만 複製能力이 VTR과 같은 高度의 器機를 生産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이와 같은 複製技術을 토대로 하여 資本의 회임 기간도 비교적 短期이고 附加價值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單純勞動集約的인 器機의 組立生産 部門이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주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2. 높은 外資依存度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높은 外資依存度を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까지만 해도 內國人 企業에 의한 電子製品의 生産은 金額面으로 볼 때 總生

<表 1> 電子産業의 生産 (단위 : US \$ 1,000)

品 目	1980	1981	成 長 率 (%)
	金 額	金 額	
內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872,612	1,309,623	150.1
産業用器機	138,434	259,457	187.4
器機小計	1,011,046	1,569,080	155.2
部 品 計	373,340	611,498	163.8
小 計	1,384,386	2,180,578	157.5
合 作 投 資			
家庭用器機	98,835	48,091	48.7
産業用器機	196,837	192,508	97.8
器機小計	265,672	240,600	90.6
部 品 計	508,283	605,230	119.1
小 計	773,955	845,830	109.3
外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206,104	216,000	104.8
産業用器機	29,164	41,745	143.1
器機小計	235,268	257,745	109.6
部 品 計	458,877	506,708	110.4
小 計	694,145	764,454	110.1
總 計			
家庭用器機	1,147,551	1,573,714	137.1
産業用器機	364,435	493,711	135.5
器機總計	1,511,986	2,067,425	136.7
部 品 計	1,340,500	1,723,436	128.6
總 計	2,852,486	3,790,861	132.9

資料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電子·電氣工業統計』, 1982.2.

産의 48%로서 그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며 198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7%로서 절반 이상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나타난 統計數値의 이면에는 電子産業의 發生 初期부터 비록 所要資本이 相對的으로 근소한 組立生産段階라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生産施設과 장비를 外資(주로 日本)에 크게 의존하였던 현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外資는 合作投資와 直接投資로 大別된다. 初期에는 그리고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合作投資에 있어서 內資는 工場敷地の 提供이라고 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으로서 原料의 購入, 生産 및 製品의 販賣 등 주요업무에 관한 經營權은 모두 外資에 귀속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合作投資에서 外資는 대체로 日本資本이다. 그 典型的인 형태를 보면 日本의 老朽施設을 導入하여 企業을 設立한 다음에 역시 日本으로부터 原資材를 輸入하고 우리나라의 저렴한 勞動力을 이용하여 電子部品을 組立, 生産하였으며 初期에는 생산된 部品이 모두 日本의 母企業에 납품되었다. 그러므로 合作企業과 外國人直接投資企業은 비록 우리나라의 領土 위에 위치하고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지만 실제로는 外國의 母企業이 관리하는 生産過程 가운데 單純勞動集約的인 組立段階만 우리나라에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과연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을 구성하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는가조차도 의심스러운 企業들이었다. 이와 같은 段階를 밟아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 특히 部品産業은 外國의 母企業이 완전히 지배하는 기형적 國際都給體系 속에서 胎動함으로써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電子産業에서 드러나고 있는 構造的 脆弱點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國內 電子産業이 점차로 成長하면서 部品에 대한 內國人需要가 점차 增大하게 되자 外資企業이 생산하는 電子部品이 國內市販될 수 있도록 法令에 의하여 許容되었다(經濟企劃院告示 第75-4號인 「電子製品生産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內販賣承認要領」 및 이를 代置하는 經濟企劃院告示 第20號인 「電子製品生産 外國人投資業體의 販賣承認要領」 참조). 또한 최근에 이르러 國內 賃金水準이 두드러지게 높아짐에 따라서 單純勞動集約的 組立産業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比較優位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한 一部 外國人 直接投資 企業은 그 철수를 進行 또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産金額面에서도 外資企業의 伸張率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電子産業內에서 外資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다소 감퇴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外資依存度가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3. 技術水準과 技術導入

電子産業은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産業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單純勞動集約의 組立産業의 형태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技術을 처음부터 獨自의으로 감당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現代의 최첨단 産業인 電子産業을 새로이 受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技術提携의 방식으로 많은 外國技術을 導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技術水準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대부분의 家庭用電子器機와 일부 간단한 産業用器機를 스스로의 힘으로 複製하여 생산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LSI 및 VLSI의 生産과 관련된 半導體技術과 高度한 知識産業의 分野가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技術은 全無한 상태이다. 또한 製品의 品質과 관련되는 非電子技術에서는 금형과 도금의 技術이 두드러지게 낙후되어 있다.(業界의 의견을 종합하면 半導體, 컴퓨터, 금형 및 도금 등 부문의 技術이 우리나라 電子産業에서 가장 落後되어 있다고 한다.) 그 특성상 半導體 및 컴퓨터技術은 大規模의 資本을 要하는(中小企業이 감당하기 어려운) 大企業型이며, 반면에 금형과 도금은 잡다한 여러 品目的 製品을 小量씩 生産하는 業種이기 때문에 中小企業型이다. 그러므로 금형과 도금의 技術은 큰 투자를 부담하지 않고도 발전을 기할 수 있는 技術인 것이다.

科學技術處의 資料에 따르면 1977年末까지 認可된 鑛工業分野의 技術導入 總 842件 가운데 電子産業分野의 技術導入件數는 118件으로서 機械工業分野의 255件과 精油 및 化學工業分野의 166件에 이어 3位를 記錄하고 있다.(電氣器機까지를 포함한다면 175件으로서 精油 및 化學工業을 앞지르게 된다.)

〈表 2〉는 電子産業 分野別 技術導入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그 構成을 보면 1977年末까지의 期間 동안 導入된 海外技術은 家庭用器機分野에서 18件, 産業用器機分野에서 31件, 그리고 部品分野에서 69件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況은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그 技術의 측면에서 볼 때 家庭用器機의 生産部門에서 가장 앞서 있고 部品の 生産部門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技術導入의 國別 現況을 살펴보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 特記할 만한 점은 전체 導

〈表 2〉 電子工業技術의 分野別 導入現況

(단위: 件)

分 野 別	1966~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計
가 정 용 기 기	2	—	—	5	3	4	1	1	18
산 업 용 기 기	19	3	1	2	—	1	6	—	31
부 품	24	4	4	7	6	6	7	12	69
計	45	7	5	14	9	11	14	13	118

資料: 科學技術處, 『先進技術總覽』, 1979.

〈表 3〉 電子工業技術의 國別 導入現況

(단위 : 件)

國 別	1966~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計
日 本	33	7	3	12	8	7	9	10	89
美 國	9	—	2	2	—	4	5	3	25
네델란드	1	—	—	—	1	—	—	—	2
西 獨	2	—	—	—	—	—	—	—	2
計	45	7	5	14	9	11	14	13	118

資料 : 科學技術處, 『先進技術總覽』, 1979.

入 118件的의 74.5%에 이르는 89件的의 技術이 日本으로부터 導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資本에서부터 技術에 이르기까지 日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電子産業의 높은 對日依存度는 이웃 日本이 世界電子産業分野에서 最先

〈表 4〉 電子製品 輸出現況

(단위 : US\$ 1,000)

品 目	1980		1981		成 長 率 (%)
	金 額	金 額	金 額	金 額	
內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699,263		841,297		120.3
産業用器機	37,853		68,080		179.9
器機小計	737,116		909,376		123.4
部 品	217,012		249,062		114.8
小 計	954,128		1,158,438		121.4
合 作 投 資					
家庭用器機	59,093		48,322		81.8
産業用器機	42,441		36,899		86.9
器機小計	101,534		85,221		83.9
部 品	198,928		188,830		94.9
小 計	300,462		274,051		91.2
外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226,521		219,614		82.4
産業用器機	34,412		40,005		116.3
器機小計	260,933		259,619		99.5
部 品	488,278		503,480		103.1
小 計	749,211		763,099		101.9
總					
家庭用器機	984,877		1,109,233		112.6
産業用器機	114,706		144,984		126.6
器機總計	1,099,583		1,254,217		114.1
部 品	904,218		941,372		104.1
總 計	2,003,801		2,195,589		109.6

資料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電子·電氣工業統計』, 1982. 2.

進國임을 감안한다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까닭이야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이 두드러지게 높은 對日依存度는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構造의 特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지적될 수가 있다.

電子産業이 시작되면서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海外先進技術의 導入은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技術水準을 括目할 만하게 발전시켰다. 물론 아직도 우리 技術이 獨創的 製品을 生産해내는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産業用器機와 製品의 生産에 필요한 技術에 있어서는 그 落後相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家庭用器機의 生産에 있어서는 역시 獨創的 製品을 生産해내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廣範圍하게 사용되는 부품인 線型集積回路(Linear IC)에 이르기까지) 현재 生産되고 있는 製品이면 무엇이든지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複製하여 生産할 수 있을 만큼 그 技術이 발전해 있는

<表 5> 電子製品 內需現況

(단위 : US \$ 1,000)

品 目	1980	1981	成 長 率 (%)
	金 額	金 額	
內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275,818	480,991	174.4
産業用器機	119,072	189,954	159.5
器機小計	394,890	670,945	169.9
部 品	121,032	186,742	154.3
小 計	515,922	857,687	166.2
合 作 投 資			
家庭用器機	12,815	12,428	97.0
産業用器機	172,530	167,672	97.2
器機小計	185,345	180,100	97.2
部 品	99,599	130,271	130.8
小 計	284,944	310,371	108.9
外 國 入 投 資			
家庭用器機	—	—	—
産業用器機	—	—	—
器機小計	—	—	—
部 品	4,238	2,967	70.0
小 計	4,238	2,967	70.0
總 計			
家庭用器機	288,633	493,419	171.0
産業用器機	291,602	357,626	122.6
器機總計	580,235	851,045	146.7
部 品	224,869	319,980	142.3
總 計	805,104	1,171,025	145.5

資料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電子・電氣工業統計』, 1982. 2.

것이다.

4. 輸出産業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輸出産業이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年度 輸出 對 內需의 比率은 65.6:34.8이며 그 가운데 內國人企業의 경우만 살펴보면 57.5:42.5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世界市場의 不況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1980年度만 하더라도 그 비율은 71.3:28.7(內國人企業 64.9:35.1)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電子製品的의 市場은 2/3가 海外市場이며 內需市場은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海外市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까닭을 살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單純勞動集約的 組立産業으로서 過

<表 6> 電子製品的의 輸出 對 內需比率

(단위 : %)

品 目	1980		1981	
	輸 出	內 需	輸 出	內 需
內 國 入 投 資				
家 庭 用 器 機	71.7	28.3	63.6	36.4
產 業 用 器 機	24.1	75.9	26.4	73.6
器 機 小 計	65.1	34.9	57.5	42.5
部 品 計	64.2	35.8	57.2	42.8
小 計	64.9	35.1	57.5	42.5
合 作 投 資				
家 庭 用 器 機	82.2	17.8	79.5	20.5
產 業 用 器 機	19.7	80.3	18.0	82.0
器 機 小 計	35.4	64.6	32.1	67.9
部 品 計	66.6	33.4	59.2	40.8
小 計	51.3	48.7	46.9	53.1
外 國 入 投 資				
家 庭 用 器 機	100	0	100	0
產 業 用 器 機	100	0	100	0
器 機 小 計	100	0	100	0
部 品 計	99.1	0.9	99.4	0.6
小 計	99.4	0.6	99.6	0.4
總 計				
家 庭 用 器 機	77.3	22.7	69.2	30.8
產 業 用 器 機	28.2	71.8	28.8	71.2
器 機 總 計	65.5	34.5	59.6	40.4
部 品 計	80.1	19.9	74.6	25.4
總 計	71.3	28.7	65.2	34.8

註 : <表 4> 및 <表 5>에서 作成.

去 10여년 간에 걸쳐 賃金水準의 면에서 比較優位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더하여 政府가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輸出促進政策을 들 수가 있다. 실제로 電子産業은 이와 같은 이유로 그 初創期에서부터 아직 그 기초도 다져지기 전에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幼稚戰略産業이면서 동시에 이미 外化 획득의 역군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여야 했던 것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全量 外國의 母企業에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하는 外資部品生産企業들이 적극 유치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輸出品을 생산하는 母企業들이 國產部품을 기피하는 副作用을 초래하게 되었다.

세째, 國內市場에 판매되는 家庭用電子器機에 대하여 높은 稅率의 特別消費稅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內需市場을 크게 위축시킨 점이다. 결과적으로 아직 그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이렇다 할 內需의 뒷받침이 주어지지 않은 채 海外景氣의 變動에 敏感하지 않을 수 없는 체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IV. 萎縮된 部品産業과 歪曲된 供給體系

1. 部品産業의 未發達

우리나라의 경우 單純勞動集約的 組立産業은 比較優位의 면에서 분명히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器機類의 組立段階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점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우선 接近할 수 있고 또한 有利한 組立産業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資本과 技術을 축적하면서 이렇게 축적된 資本과 技術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部品産業을 選別하여 育成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電子産業 가운데 內國人企業의 生産實績을 살펴보면 總生産額 가운데 部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1980년에 27.0% 그리고 1981년에 28.0%를 각각 記錄하고 있다(〈表 1〉 참조). 器機生産의 段階에서 附加價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統計數値는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海外部품을 얼마나 많이 導入하고 있는가를 예시해 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部品部門은 대단히 취약한 것이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것도 組立段階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생각할 때 部品産業이 이렇듯 不振한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제반 역경을 극복하고 重要한 部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을 만큼 部品産業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電子部品産業을 위축시키는 要因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需要不足

電子部品産業을 위축시키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알아 본 바 있지만 部品産業은 그 需要가 器機나 素材보다 상대적으로 근소하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中小企業型이다. 이것은 물론 部品産業의 生産技術이 작은 生産水準에서 規模의 不經濟的 段階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部品産業이 中小企業型인 까닭은 그 需要가 근소하기 때문인 것이며 결코 그 生産技術이 「規模의 不經濟」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部品産業은 현재 그 生産량이 근소하기 때문에 生産技術적으로 「規模의 經濟」가 발생하는 단계에 처하여 있으며, 따라서 部品の 需要가 증대할 경우에 두드러진 원가절감의 效果까지 거둘 수가 있다. 즉 需要의 不足은 部品産業 一般에 대한 기본적 애로인 것이며 需要의 增大는 部品産業의 加速的 發展을 誘發하게 되는 것이다.

國產電子部品에 대한 需要가 충분히 크지 못한 데 대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그 첫번째의 요인은 國產電子器機産業의 규모에 비하여 그 內需市場이 상대적으로 萎縮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天然色 TV를 포함한 각종 家庭用電子器機를 사치품으로 취급하여 높은 稅率의 特別消費稅를 장기간 동안 적용하여 온 租稅政策은 內需市場을 억압하여 온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지적될 수가 있을 것이다. <表 6>을 보면 內國人 企業에 의하여 생산된 電子製品의 內需比重은 1980年度の 35%에서 1981年度에는 43%로 1年 사이에 8%포인트나 伸張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안 內需가 활발하게 振作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작금의 世界的인 不況을 감안할 때 그 만큼 輸出이 不振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國產電子器機의 主要販路가 海外市場인 경우에 그 品質이 外國產器機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水準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內需가 不實하고 주로 輸出에 의존하여야 하는 器機生産企業으로서의 大部分 品質面에서 外國產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國產部品을 구태여 구입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表 7>은 몇 개의 電子器機에 대하여 그 國產化率을 輸出用과 內輸用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表에서 보듯이 內需用의 國產化率은 輸出用の 그것보다 모든 品目에 걸쳐 월등히 높다. 그러므로 國產電子器機에 대한 內需의 不振은 輸出不振의 경우보다 더 심하게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國產電子部品에 대한 需要를 위축시키는 두번째의 要因으로는 大部分의 國產器機生産企業의 規模가 先進國企業의 規模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이다. 물론 黑白 TV

〈表 7〉 主要電子製品の 國產化率

(단위: %)

	輸 出 用		內需用國產化率
	外貨稼得率	國 產 化 率	
黑 白 T V	96	95	95
칼 러 T V	36	34	—
라 디 오	75	80	99
녹 음 기	50	39	65
전 축	56	43	80
抵 抗 器	57	34	65
스 피 커	81	68	82
콘 덴 서	55	68	82
스 위 치	40	30	42

資料: 韓國電子工業振興會, 『電子工業便覽』, 1979~80.

의 경우와 같이 세계 굴지의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品目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몇가지 品目を 集中的으로 專門化하여 생산한다기보다는 모든 전자기기를 조금씩 다 생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品目別 生産規模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器機生産의 部門에서 生産技術에 內在하는 「規模의 經濟」的 잇점을 충분히 吸收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部品에 대한 需要의 측면에서도 몇가지 一定한 規格의 部品을 大量으로 需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잡다한 부품들을 조금씩 수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要約하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生産되는 器機에 대한 內需基盤이 취약하고 동시에 器機生産業體의 生産規模가 相對적으로 零細하기 때문에 國產電子部品에 대한 심한 需要不足의 애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部品에 대한 需要의 不足은 원래 中小企業型인 部品産業의 個別生産規模를 특히 零細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하나 하나의 部品生産企業이 필요로 하는 素材의 수량 또한 근소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만약 需要만 충분하다면 國內에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素材까지도 需要不足으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部品에 대한 需要의 遲체는 素材産業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技術의 落後性

우리나라의 電子部品産業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要因으로는 落後된 技術水準을 들 수가 있다. LSI 또는 VLSI와 같이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高性能 電子部品은 아직도 우리의 技術水準으로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機能을 發揮하는 電子部品이라고 하더라도 外國產(특히 日本產)과 國產部品の 性能을 비교하면 品質面에서 國產部品이 뒤떨

〈表 8〉 國產化率—家庭用과 産業用

品 目	國 產 化 率	備 考
전 탁	68%	산 업 용
금 전 등 록 기	45%	
사 실 교 환 기(전자식)	63%	
모 니 터	80%	
칼 러 T V(수 출)	80%	가 정 용
흑 백 T V	90%	
V T R	44%	

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國產部품을 高級化시키려는 노력은 內外資合作으로 部品生産 企業을 설립하고 海外技術을 적극 導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값비싼 高級의 部품을 海外에 의존하고 값싼 低級의 部品만을 國內에서 생산 조달하면서 先進國의 資本 및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品質의 高級化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表 8〉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電子器機 生産業體가 生産하는 몇가지 製品에 대하여 品目別 國產化率을 요약한 것으로서 部品の 生産技術과 관련된 그러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表 8〉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産業用器機의 國產化率은 家庭用器機의 그것보다 두드러지게 낮다. 특히 모니터는 사실상 흑백 TV와 같은 器機인 데도 불구하고 그 國產化率이 10%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그 까닭은 물론 産業用器機의 生産에 사용되는 部품은 家庭用 器機의 生産에 사용되는 部품보다 더 精密하고 耐久的이어야 하는 등 要求되는 品質基準이 高級인 데 반하여 國產部品の 品質은 이 基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國產 産業用器機의 主市場이 內需市場이며 따라서 先進國製品과 品質競爭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가벼움을 고려할 때(〈表 6〉 참조), 産業用器機의 國產化率이 輸出用 칼러 TV보다도 저조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電子部品生産技術이 얼마나 落後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나라의 部品産業은 技術面에서 현재 家庭用器機의 生産은 뒷받침할 수가 있지만 産業用器機의 生産까지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表 8〉은 또한 家庭用器機이면서도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VTR의 경우 그 國產化率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家庭用電子器機에 대한 世界市場은 일단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품목이 VTR과 産業用電子器機임을 감안할 때 部品生産技術의 振興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된다.

물론 현재 海外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部품 가운데에는 國內技術에 의하여 生産할 수 있는 品目도 없지는 않다. 다만 그 原價가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外國產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品目の 國內開發을 촉진하려면 무엇보다도 需要増大를 통하여 大量生産體制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國際的으로 競爭可能한 水準까지 原價를 節減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결국 部品産業을 萎縮시키는 主要因으로서의 需要不足은 技術上的의 애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3) 資金不足

근거있는 統計資料를 입수하기 어려워져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銀行貸出은 대체로 大企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本研究의 일환으로 部品業體를 探訪 面談하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銀行으로부터 資金을 貸出받고 있는 中小企業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大部分의 中小企業들은 自己資本이나 私債를 통하여 資金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그 만큼 높은 費用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銀行貸出을 아예 不可能한 것으로 취급하여 고려의 대상으로도 삼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 支援 特別資金까지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貸出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信用保證基金의 活用に 대하여서도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다.

대신 많은 中小企業들이 代金決濟의 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 있음을 호소하였다. 母企業이 납품된 물건에 대한 檢査期日을 고의로 지연시킴으로써 또는 어음의 決濟期間을 늘림으로써 代金決濟期間을 번칙적으로 연장하는 事例는 빈번하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附加價値稅를 현금으로 代金を 受取하게 되는 時點보다 훨씬 이르게 물건을 납품한 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資金借入의 면에서나 代金決濟의 면에서나 部品生産業體는 부당하게 높은 費用의 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높은 資金調達費用은 필연적으로 部品の 生産原價에 反映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資金面에서 不利한 여건은 原價節減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部品産業의 成長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4) 非技術者인 經營者

本研究에서는 116개의 電子部品生産業體를 對象으로 하여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經營者의 학력이 高卒以下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는 106개 업체에 달하였는데 이것을 專工分野別로 分類한 결과 <表 9>와 같이 나타났다. <表 9>에 의하면 그 자신 技術者인 經營者의 비율은 전체의 35.8%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企業의 規模가 零細할수록 그 組織도 단순하고 資産도 적기 때문에 人事 및 財務管理 등의 업무도 간단하다. 部品를 생산하는 中小企業은 그 製品을 주로 母企業에 납품하는 형태로 販賣하고 있기 때문에 器機의 경우와는 달리 그 市場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表 9〉 專攻別 經營者 現況

分 野	業 體 數	%
工 學	38	35.8
商 經 學	35	33.0
法 學	10	9.5
其 他	23	21.7
計	106	100.0

비교적 안정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中小部品生産業體는 販賣, 人事, 經理 및 財務 등의 分野에 대한 高度의 經營能力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販賣, 人事, 經理 및 財務管理 등의 업무가 大企業의 經營에서 중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中小部品生産業體의 經營에서는 技術改善을 통하여 製品의 品質向上과 原價節減을 꾀하는 일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이다. 經營者 자신이 技術者로서 生産工程의 最一線에서 다른 技能工들과 함께 일하면서 製品의 品質과 價格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하나 둘 해결하여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表 9〉의 現況이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電子部品業界의 실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表 9〉는 우리나라 産業의 전반에 걸친 企業活動의 여건에 대하여 間接的이나마 중요한 점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즉 企業活動에서 성공하는 예에는 品質改善보다는 오히려 資金調達, 대금결제의 방법, 稅金管理 및 기타 對外的 涉外關係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品質은 生産技術上的의 문제이지만 資金, 대금결제, 稅金 및 기타의 涉外關係 등은 社會制度的, 慣行的의 문제이다. 社會制度和 慣行이 企業活動을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企業의 관심은 技術의 문제보다는 制度和 慣行的의 문제에 치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技術에 밝은 經營者보다는 制度和 慣行에 밝은 經營者가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長期的으로 보아서 電子部品産業은 技術改善을 통한 品質의 向上과 原價의 節減을 이룰 수 있어야만 발전하게 된다. 〈表 9〉의 現況과 같이 大部分의 部品業體들이 非技術者인 經營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한 部品産業의 진정한 발전은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가지의 중요한 점은 工科大學出身의 技士級人力이 대체로 部品部門의 中小企業體에 취업하기를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經營者의 거의 대부분이 非技術職인 터에 간부급 高級技術人力마저도 中小部品業體에 취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部品産業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 電子部品産業을 위축시키는 몇가지 要因들을 項目別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물론 이 밖에도 部品産業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은 있다. 예컨대 部品生産業體는 中小企業인 데 반하여 素材供給業體는 獨寡占大企業이기 때문에 原資材를 購入하는 단계에서도 部品生産業體는 (價格 및 기타의 去來條件의 면에서) 매우 不利한 위치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위에서 살펴 본 4가지 要因이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判斷된다.

2. 歪曲된 都給體系

〈表 1〉을 보면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總生産에서 部品生産이 차지하는 比重은 1980年度에 47.0% 그리고 1981年度에는 45.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대표적인 天然色 TV生産業體의 경우를 보면 外注比率이 70%를 상회한다. 이상의 統計數値만 보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에서도 部品産業이 均衡있게 발달되어 있고 都給化 또는 系列化도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部品産業과 그 都給體系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 보면 이것이 대단히 歪曲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歪曲된 都給體系야말로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阻害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電子産業都給體系의 歪曲된 면을 分類하여 보면 다음의 세 項目으로 要約된다.

(1) 內國人企業間 都給關係의 低調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電子産業의 生産活動에 대한 統計資料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外國人 直接投資企業 모두와 合作投資企業 一部에 의한 生産活動을 그 나머지와 區分하여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의 모두와 合作投資企業의 一部의 生産活動은 海外母企業의 生産과정 가운데에서 單純勞動集約的 組立過程만을 우리나라에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一種의 國際的 都給(international subcontracting)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國際的 都給은 우선 그 經營管理의 권한이 外國人의 손안에 있고, 또한 고용효과 이외에는 國內業界에 아무런 파급효과(예컨대 技術전과 等)도 誘發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部品産業을 育成한다는 면에서 볼때, 이와 같은 형태의 國際的 都給은 결코 어떠한 보탬이 되는 都給形態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表 1〉과 〈表 5〉의 統計數値를 활용하면 內國人 中小企業과 內國人 母企業間的 都給關係가 차지하는 比重을 統計數値로 算出해 낼 수가 있다. 表에서 內國人 企業이 內需用으로 생산한 部品の 生産額은 바로 內國人 母企業에 납품한 部品の 總額에 대한 上限線이 된다. 이것이 電子産業 전체의 總生産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1980年度와 1981年度에 각각 9%과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 統計數値들은 우리나라 電子産業에 형성되어

있는 都給體系의 內容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企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일부 合作企業의 활동을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증대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고용증대의 效果 이외에 우리나라 電子產業發展의 디딤 돌이 되어야 하는 기초가 너무도 취약한 것이다.

(2) 國際商業的 都給

海外로 輸出되는 電子製品의 대부분이 生産者인 內國企業의 商標로 輸出되지 못하고 外國企業의 商標로 輸出되고 있다. 즉 電子製品의 輸出은 주로 商業的 都給(commercial subcontracting)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器機의 輸出에서 이와 같은 都給의 형태가 支配的이다. 예컨대 K社의 경우는 天然色 TV의 모두와 선풍기의 일부, 그리고 L社의 경우는 天然色 TV의 일부와 냉장고의 전부를 自社 固有의 商標로 輸出하고 있으며 나머지 品目の 輸出은 모두 商業的 都給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器機의 輸出이 商業的 都給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들어 보면 製品의 生産者인 內國企業이 世界市場에서 선전,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제반 活動을 펼 수 있는 獨自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內國企業의 商標가 國際的 信認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獨自의 商標에 의한 輸出은 어려운 반면에 시어즈(Sears), 페니(J.C. Penny) 등 美國의 유명한 연쇄 백화점과 일본의 유명한 電子製品生産業體의 商標를 부착한 輸出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製品의 (商業的 都給에 의한) 輸出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그리고 國產輸出品의 品質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輸出品에 부착된 外國母企業의 商標에 대한 國際的 信認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동시에 그 판매망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電子產業이 成長하여 언젠가는 世界市場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販賣網을 구축하고 우리의 商標로 輸出하게 될 때 이들 外國의 母企業들이 결국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임을 생각한다면 현재 商業的 都給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輸出은 결코 소망스러운 것일 수가 없다.

(3)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對立的 關係

대개의 母企業에서는 購買部長 또는 工場長이 受給企業을 결정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製品의 品質과 價格에서 그리 큰 變化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된 都給體系가 유지된다. 그러나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다른 產業에서와 마찬가지로) 和合的이기 보다는 對立的이다. 예컨대 母企業들은 中小企業들이 대단히 不誠實한 영업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母企業들은 長期的으로 部品生産의 專門家가 될 것을 스스로 희망하면서 진지하게 생산에 임하는 中小企業은 거의 없다고 判斷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中小企業들은 그들대로 母企業의 無計劃의 生産을 비판한다. 母企業들이 갑자기 많은 物量을 短時日內에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평소에 높은 在庫水準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들은 母企業이 불가피하게 生産계획을 취소하게 될 때 이미 주문한 部品를 수령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납품된 部品에 대해서도 檢査의 과정에서 이것들을 意圖的으로 모두 不良品으로 判定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불평한다. 母企業은 급속히 변화하는 先進技術을 따라 잡고 또한 해외시장의 價格下落을 製品의 全生産단계에서 고루 흡수함으로써 效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系列受給企業들에 대한 強力한 支配權을 主張한다. 반면에 受給企業들은 겨우 公開된 設計를 토대로 하여 製品을 複製할 뿐 아무런 기술축적(특히 部品에 관한 技術蓄積)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母企業으로서는 技術的으로 受給企業들을 領導할 能力이 없으며 母企業이 支配權을 主張하는 의도는 部品價格의 策定과 對金支拂條件의 決定過程에서 보다 有利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반박한다.

本研究에서 116개 電子部品生産業體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設問調査에서도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의 協力關係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表 10>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表 10>에서 두드러진 점은 거의 모든 項目에서 受給企業에 대한 母企業의 지원이 제대

<表 10> 母企業과 受給企業間的의 相互協力

(단위 : %)

項目	協力指標						응답수(件)
	1	2	3	4	5	6	
技術指導	13.3	6.0	20.0	10.0	16.9	53.8	83
經營指導	4.9	3.7	12.3	7.4	11.1	60.6	81
資金支援	3.7	1.2	3.7	7.3	11.0	73.1	82
機械 및 設備貸與	1.2	3.7	6.2	6.2	14.8	67.9	81
原料供給	6.0	6.0	9.6	7.2	10.8	60.4	83
技術改善上的相互協力	11.0	4.9	18.3	15.9	23.2	26.7	82
融資保證	3.7	3.7	4.9	4.9	2.5	80.3	81

註：協力指標의 意味는 다음과 같다 :

- 1=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 2=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대만큼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다.
- 3=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도움도 되고 있다.
- 4=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 5= 소극적이며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
- 6=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資金支援 및 融資保證 등 資金調達에 관한 면의 지원은 특히 불량하며, 반면에 技術과 관련된 계반지원은 역시 不良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電子部品生産業體들은 母企業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母企業과 系列受給企業이 서로 협조하는 건실한 都給體系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不信하고 反目하며 돕지 않는 歪曲된 都給體系에 얽매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母企業과 受給企業의 雙方이 모두 길게 앞날을 전망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다룬 결과이며 電子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은 認識不足의 短見은 하루 빨리 拂拭되어야 하는 것이다.

V. 改善方案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電子部品産業의 現況과 그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電子産業을 育成하려고 하는 政府方案은 물론 이들 여러가지 沮害要因들을 效果的으로 除去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지금까지의 論議를 토대로 하여 몇가지의 改善方案을 講究해 보기로 한다.

1. 內需의 振作

앞 第4節에서 본 바와 같이 器機에 대한 內需의 증가는 같은 크기의 海外需要의 증가보다도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增大를 더 크게 誘發시킨다. 그러므로 國產器機에 대한 內需의 增加를 초래하는 政策을 채택하면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를 보다 效果的으로 增大시키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각종 家庭用器機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高率의 特別消費稅를 철폐 또는 大幅 引下한다거나, 電子式 交換機 및 電子計算機 등 各種 産業用器機를 政府가 官需用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 모두 國產品을 購入하도록 조치한다면, 그 파급효과로서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不足의 애로는 현저하게 改善될 것이다.

2. 器機生産規模의 大型化

器機에 대한 內需의 증가 뿐만 아니라 海外需要의 증가도 역시 國產部品에 대한 需要를 增大시킨다. 그러나 輸出市場의 擴大는 우리나라 政府의 政策보다는 다른 外生的 要因에 더 많이 依存하므로 具體적으로 提示할 수 있는 政策方案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世界市場과 電子製品 輸出國들의 生産能力 등의 動態를 감안하여 몇가지 品目の 器機를 選定, 이

를 大量 生産하도록 産業構造를 改編하는 政策은 具體的인 政策方案으로서 部品産業의 育成에 크게 도움이 되는 政策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개편된 器機産業의 構造는 部品生産企業으로 하여금 雜多한 여러가지의 部品을 조금씩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規格化된 몇 가지의 部品을 大量生産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部品産業으로 하여금 規模의 經濟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品質向上과 原價節減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편으로 이와 같은 産業구조의 개편은 先進 電子工業國과의 경쟁에서도 우리나라를 有利하도록 하는 政策이 된다.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아직 新規品目的 開發 등의 分野에서는 先進電子工業國들과 競爭相對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先進國들이 新規品目的 개발에 열중하는 동안 등한히 하는 品目 가운데에서 수익성도 높고 우리의 技術로도 생산할 수 있는 品目を 골라서 그 生産規模를 大型化하는 경우에 價格 및 品質面에서 우리의 製品이 先進國의 製品을 얼마든지 압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最近 CRT의 경우는 그 代表的인 例가 될 수 있다. 다만 品目選定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자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品目選定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部品生産企業의 團體結成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企業들은 素材를 購入하고 製品을 販賣하는 과정에서 모두 大企業들과 상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交渉力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약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企業들끼리 研究組合과 같은 團體를 結成하고 共同으로 對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結成된 團體를 통하여 素材를 共同으로 購入하면 海外의 素材供給者에 대하여 보다 더 效果的으로 대처할 수가 있으며 또한 購入하는 素材의 數量도 各企業이 個別的으로 구입할 때 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單一 需要의 規模가 방대해지면 어떤 素材에 대해서는 그 素材의 國內開發까지도 效果的으로 促進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組合을 통하여 技術上의 情報를 서로 交換하고 研究開發投資도 共同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研究開發投資는 所期の 成果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投資規模가 매우 크기 때문에 中小企業으로서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共同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기업은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所期の 成果를 期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플라스틱 필름 콘덴서(plastic film condenser) 製造業體들이 結成한 研究組合은 이러한 團體에 대한 좋은 例가 된다. 물론 結成된 團體를 惡用하여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일은 防止할 수 있도록 미리 制度的으로 補完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 中小企業活動與件的 改善

비단 電子產業에만 局限된 것도 아니고 客觀的 資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바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企業活動에서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間接費의 比重이 지나치게 높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政府가 관장하는 民願業務의 처리과정과 銀行 및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과정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잡다한 여러가지 不條理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 등이 間接費의 比重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間接費는 大企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체 費用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생산되는 部品の 單價를 높이는 主要要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間接費의 比重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금융, 경리 및 稅務 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경영자가 技術問題를 잘 처리하는 경영자보다 中小企業의 경영에서 더 유리하게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中小企業들이 技術改善에만 專念하여 部品の 品質을 向上시키고 原價를 節減시킴으로써 部品産業이 健實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業務節次를 간소화하고 不條理를 一掃시킴으로써 間接費를 대폭 낮추는 조치가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